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들

기획시리즈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8〉

이 기 영

삶과 문학을 일치시킨 사회주의문학 운동가

1930년대 조선문단에서 신념과 지조가 굳기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 이기영, 일제하 최고의 수작으로 평가되는 '고향'(1933)과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두만강'(1954-61)을 쓴 작가 이기영. 1925년8월(카프)결성과 더불어 사회주의문학운동에 참가, 해방후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연맹〉과 〈북조선문학예술 총연맹〉을 주도했고, 갈수 없는 반쪽의 땅에서 북조선예술동맹 명예위원장을 비롯 각종 문화단체를 이끌었던 문학운동가 이기영, 한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운동가로서 그의 삶은 신의를 지킨다는 한 가지로 모아졌고 생유마감하는 날까지 이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촌 이기영의 삶과 문학과 행적은 바로 이러한 지조의 응결과 정이었다.

갑오농민항쟁과 의병투쟁의 근거지로서 많은 전설이 깃들인 고장, 빈농과 화전민들이 살았고 양반은 이사를 와도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 가곤 했다는 民村, 그 곳에서 이기영은 태어나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 곳 생활의 소박함과 성실하고 건강한 민중들의 생명력은 작품의 원천이 된다. ('민촌'(1926), '서화'(1933), '고향'(1933), '두만강')

소설읽고 애국심 싹터

열한살 나던 해 민촌은 어머니를 여의고 마을 밖을 곳을 찾아 고대소설을 읽었고 거기서 애국주의 사상을 섭취한다. 그후 신소설 '치악산'을 읽고 커다란 충격을 받아 그 주인공들처럼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는 애국자가 될 것을 꿈꾸기도 한다. 1910년 해외유학의 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 년간 농사를 짓다가 다시 수년간 조선일대를 방랑한다. 노동, 광산, 수리조합, 제방공사장에서 날품을 팔고 광석을 캐기도 했던 그는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면서 '이 억울하고 분통한 사정을 속 시원히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없을까?' 란 욕망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렇듯 그의 작가로서의 출발은 조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였고, 때문에 창작을 하는 동안 한시도 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마침내 민촌은 스물일곱에 마산시절의 친구와 함께 동경으로 고학의 길을 떠난다. 그는 동경 정칙영어학교를 다니면서 대소서의 필생으로 학비를 벌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저녁에 2층에서 내려오다가 현기증으로 휼도를 하여 그만 중계 밑으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다. 함께 간 친구는 노동판을 쫓아다니다가 직업적 사회운동가로 나서고 민촌은 이 친구로부터 처음 사회주의 책자 '자본주의의 기구'라는 팜플렛을 접하게 되면서 맑스주의 서적을 탐독, 계급의식에 눈뜨게 된다. 그리하여 1921년 11월 재일 한국인이 창건한 무정부주의와 볼셰비즘의 양 경향을 나타냈던(흑도회)에 관계하기도 한다.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으로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1년 반 동안 민촌은 맑스주의 서적을 탐독함과 동시에 푸쉬킨, 고골리,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체홉, 고리끼 등 러시아문학을 접하게 된다. 성장과정과 창작동기의 유사성 때문인지 민촌은 우리에게 '어머니'로 잘 알려진 작가 고리끼를 특히 선호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그의 회고담을 들어보기로 하자. "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에 찌들려 지낸 것이 고리끼의 처지와 비슷한데가 있어서 계급적 공통성을 느끼었으며 그의 고상한 인도주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고리끼의 작품을 탐독하면 중 나는 고리끼 자신이 '생활의 대학'을 거쳐서 체득한 세계관, 노동에 대한 심원한 인식과 낡은 사회의 매장자이며 새 사회의 주인인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확신에 깊은 공감을 느끼었다… 참으로 소비에트문학은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바꿔 놓았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 민촌은 '문명개화되었다는 시대'에 겨절리지 고 있는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죄행과 악작한 현실을 쪼르, 규탄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렇게 쓴 글이 그의 미발표 처녀작 '암흑'(1924)이다.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보고 들은 것은 정말 암흑뿐이었던 것이다. '암흑'을 들고 민촌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장이던 홍신유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홍명희를 찾아가나 퇴짜를 맞고 고민하던중 '개벽' 창간 4주년(1924) 기념현상작품모집에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를 응모, 입선하여 작가로서 출발한다. 민촌의 작가로서의 준비과정은 우서울로 아주 올라와 포석 조명희의 알선으로 조선지광사에 취직하는 한편 사회주의 문학운동단체인 (카프)에 가담한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무렵 (염군사)와 (파스쿨라)가 통합되면서 생겨난 단체가 바로 (카프)다. (카프) 가맹원 중 조명희, 최승일과는 민촌이 인사동 도서관을 다니며 문학작품을 탐독했던 1924년경부터 교우했다. 최승일은 (형설회(고학생동우회))회원이자 무산계급해방문화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한 (염군사)의 일원이기도 했으므로 작배경에는 (하리코프 대회)(1930. 11)의 성과-노농동맹의 강화와 토지혁명의 슬로건-와 국내의 농민문학논쟁이 있었다. 이는 민촌이 (카프)의 문학운동는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증거다. 그러므로 "정직히 고백하면, 창작방법에 있어 목적의식을 운위한 때부터 나의 창작실천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참으로 거금 생각하면 나는 그만 이 슬로건들에 가위눌리고 말았던 것 같다"고 한 민촌의 회고담도 (카프)에서 제시한 창작방법을 온전히 자기것으로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

◇이기영은 일제에 맞서 물러적인 투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조있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이를 문학 속에서 펼쳐 나갔다. 사진은 1920~30년대의 문예지

억압받는 민중 곁에 선 지조의 필봉

계급적 공통성·인도주의정신 지닌 고리끼에 큰 감명
모성동경·조혼 영향…여성 제약하는 봉건적질곡 인식

관을 가지고 있었다. 민촌이 여성의 삶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이 낳은 강렬한 모성동경과 할머니의 환갑유 맞아 손부를 보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혼이다. 모성동경은 이중삼중의 억압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의 현실을 일깨웠고,조혼에서 비롯된 갈등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불합리성에 눈을 돌리게 했다. 그리하여 민촌은 점차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봉건적 질곡-몰락하는 농촌경제에서 야기되는 성의 상품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멸시와 예속, 강제결혼이나 조혼의 불합리성에서 빚어지는 모순-을 인식해 간다.('가난한 사람들'(1925), '민촌'(1926), '민며느리'(1927)) 나아가 '문학에서도 남녀양성을 대등으로 취급한 문학이 진정한 (인간)문학이며 그래야 프로문학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여성문에는 자기의 이해를 가장 잘 아는 여성들에 의해 일깨져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민중의 고통을 작품화하겠다는 열망만으로 민촌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갔던 것일까? 천안시 유량동의 '아랑굴' 한 촌로가 전해주는 일화는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명쾌하게 답한다. "민촌은 청년시절 시골의 장날 장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다가 일경에게 잡혀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근처 성불사라는 절에 들어가 40여일간 목으면서 겨우 시력을 회복한 적이 있다."

'고향'의 창작터로서, 시력의 회복처로서 두 가지 일화를 간직한 성불사, 이 성불사가 간직한 일화는 작가로서, 운동가로서 엄정격으로 자기를 불살랐던 민촌의 삶을 한눈에 보여준다.

글 싣는 순서

1. 종론-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2. 이동휘-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
3. 김사국-비운의 사회주의운동 지도자
4. 처금봉-"노동은 사회근본"선언한 노동운동의 선구자
5. 이재유-30년대 사회주의운동의 신화
6. 박달-일제와 맞대결한 무장투쟁가
7. 허정숙-최근까지 사회변혁의지로 정치활동한 여성운동가
8. 이기영-삶과 문학을 일치시킨 사회주의문학 운동가

'자본주의의 기구' 팜플렛 통해 계급의식 눈떠
창씨개명 조르는 아들에 "개자식이라 하려무나"호통

여꼭절이 많았으나 작가의 길에 접어드는 계기는 아주 우연적이었다. 당시 서류에 체류하면서 여관방 신세를 지던 민촌은, 여관방 문밖에서 주인이 자기 딸더러 "오경아! 오빠가 벗어논 빨래감 내오너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딴이 "이게 무슨 편지야?"하는 말에서 '오빠의 편지'를 던서로 작품을 구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빠의 비밀편지'다.

조선·동아에 외면당해

1925년 여름, 서른 살의 민촌은 기록에는 없지만 이기영의 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당시 생활과 사상을 공유한 민촌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조명희였다.

(카프)의 1, 2차 방향전환에 따른 무성한 논쟁과 자폭의 빈곤 속에서 민촌은 창작에 주력했다. 그 성과물이 바로 '고향'(1933)이다. 고향 천안의 성불사라는 암자에서 집필된 이 작품은 1920년대 농촌현실의 비참함과 계급갈등의 역동적 전개를 생동하는 서사시적 화폭으로 그려낸 일제하 농민소설의 기념비적 성과로 찬미다. '고향'의 장단가를 보여주는 일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카프 논쟁속 창작 주력

민촌은 '고향'이 발표된 직후 일부 평자들의 칭찬과 달리 '고향'이 우수한 작품이 못된다고 자평하면서, 인물 '인갑숙'의 이상화 경향을 든다. 이는 봉건적 질곡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굴욕적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보다 순진고 결한 이상적 성격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보듯이 그는 상당히 진보적인 여성

(카프)가 볼셰비키화되어 (신간회)해산에 끼어드는 등 정치투쟁에 가담한 것 때문에 1, 2차 검거를 맞고 귀가야는 해산계를 제출(1935)하기에 이르자 민촌은 그야말로 창작에만 몰두한다. ('인간수업'(1936), '신개지'(1938), '봄'(1940))대다수의 문인이 친일을 하고 민중이 창씨를 하는 상황에서도 민촌은 자기존재의 확인이랄 수 있는 글쓰기를 계속하며 지조를 지켜나갔다. 하루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선생의 구박에 몇이겨 창씨하자고 조르자 민촌은 "개자식이라 하려무나"라고 호통친다. 사상보호관찰소에서 일어로 집필하거나 강연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도 민촌은 자신은 소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였으므로 일어를 모른다고 버티나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1944년 3월 강원도 내금강 병이무지리로 온가족을 소개하여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다가 해방을 맞는다.

미래건설 꿈꾸며 월북

해방공간이란 극단한 좌, 우 대립의 장에서 민촌은 새로운 미래의 건설을 꿈꾸며 월북한다. 월북 후 정치·문화적으로 북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촌은 그의 역작 '두만강'을 한국문학사에 남겨놓고 1984년 병사한다.

한 인간으로서 지조있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이를 문학 속에, 삶의 공간 속에 펼쳐 갔던 민촌 이기영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으로 일제와 대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에 파고 들어 참된 삶의 의미를 일깨운 그의 문학작품은 물리력의 행사보다도 더 큰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문학에 대한 정열과 진보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로 한생을 살다간 이기영. 그의 작품은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이 정 희
〈대학원 석사 4기·국문학〉

세계물산(주)

신입사원 옷입기, 제1조

정장의 기본을 지키되
작은 변화의 멋을 잊지 않는다!

정장 한벌 쫌은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학생 때의 취향으로 고른 옷과
비즈니스 정장은 다른 법.
정장의 기본을 흐트리지 않은 채
자신 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옷으로
신입사원의 첫 인상을 만들어 보세요.
정장의 기본을 흐트리지 않는
작은 변화, 바쏘—
옷에서 튀지 마시고, 일에서 튀십시오.

표정이 있는 정장 — 바쏘
BASSO®

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전공학과	인원	응시자격
재무회계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00명	1. 4년제 전각대졸 해당학과 기졸업자 및 '94년2월 졸업예정자 2. 1965년 이후 출생한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수출영업	상경계열, 어문계열		
영업관리	상경계열, 섬유공학		
해외업무	상경계열 (영어, 인도어, 베트남어)		
전산	전산(공학)학		

2. 전형방법
① 1차 : 서류전형
②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당사 소정양식) 1부
② 대학교 졸업(예)년 성적증명서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① 접수기간 : 1993. 11. 15~11. 20
(평일 09 : 00~18 : 00, 토요일 09 : 00~12 : 00)
② 교부처 : 취업보도실 및 원서접수처
③ 원서접수처 : 본사·총무부 인사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동 60-9
(TEL) (02) 850-5121

전국매장 남성의류사업부/TEL. 850-5521~5 소비자보호실/TEL. 080-024-5600 (수신자부담전화)

■서울 : ●롯데본점 ☎75-6640 ●롯데잠실점 ☎419-9335 ●롯데영등포점 ☎636-6035 ●무역센터(테헤란로) ☎563-9209 ●신촌그랜드(스퀘어) ☎336-8612 ●천호(이) 도리아백화점 ☎463-1902 ●조선유통센터 ☎525-0306 ●뉴코아본점(신관) ☎599-4036 ●서울-백화점 ■인천 : ●동아서프백화점 ☎(032) 514-9175 ●부평문화백화점 ☎(032) 509-4622 ●제일백화점 ☎(032) 409-3391 ■경기 : ●과천뉴코아백화점 ☎(02) 503-5722 ●수원뉴코아백화점 ☎(031) 35-6188 ●수원점 ☎(031) 252-8080 ●부천장안백화점 ☎(032) 611-3658 ●동아오픈백화점 ☎(053) 256-1217 ●대백프라자 ☎(053) 422-7340 ■경북 : ●포항점 ☎(0562) 44-2773 ●구미동아오픈 ☎(0546) 457-4715 ■경남 : ●마산삼호백화점 ☎(0551) 21-9047 ●창원 모드니백화점 ☎(0522) 69-1134 ●진주점 ☎(0591) 42-7755 ■부산 : ●광복동점백화점 ☎(051) 256-9580 ●부산 삼성몰 ☎백화점 ☎(051) 866-5410 ■충주 : ●가든백화점 ☎(0621) 232-7711 ■전남 : ●순천 뉴코아백화점 ☎(0661) 746-0812 754-6174 ●대전백화점 ☎864 3486 ●한밭백화점 ☎776-1411 ●본사삼성몰 ☎백화점 ☎850-5656 ●청남 한신코아 ☎(0342) 730-1870 ■충청 : ●대전점 ☎백화점 ☎(042) 252-5362 ■대구 : ●태평스퀘어 ☎(053) 819-4867 ●두산백화점 ☎(051) 502-5587 ●세광백화점 ☎(051) 554-4535